한반도 통일 및 국가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친환경·휴양문화권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도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권의 모태

환황해 글로벌경제권의 주역 도시

1. 접경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2.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3. 불합리한 법규 개정 및 발전인프라 구축
4.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복선전철 건설
5.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사업
6.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지원
7.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8. 환황해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추진
9. 평화벨트 및 교류협력지구 조성
10.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지원

대한민국 차세대 주력 성장엔진

경기도

경기도를 차세대 주력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차세대 주력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냉전체제의 희생물로서 심리적인 저항·단절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발전동력의 상실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낙후는 타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주요인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의 집중 입지로 인해 광범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각종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기 접경지역은 실질적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여러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냉전과 긴장의 한반도 이미지 및 국가신용도 개선

- 한반도 접경지역을 더 이상 갈등의 상징지역이 아닌, 남북간 협력과 상생의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 단절된 한반도를 통합하고, 대륙 및 세계와 연결되는 동아시아 국제협력의 상징지역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중심지이자 21세기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이미지 개선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지역으로 전환

-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평화도시건설로 남북한 공존 및 공동번영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분단 후 50년 동안 방치되고 분단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 온 70만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개선

- 접경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2,400만 명 수도권 주민의 관광여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접경지역 내 고용중심 및 중심도시 육성으로 자립적 지역생활권 형

성에 기여하겠습니다.

- 굴뚝산업이 아닌 과거 · 현재 · 미래, 그리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발전의 새 모델 구축으로 개발 일변도가 아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역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래 통일비용 절감과 시베리아 진출 토대 구축

- 개성공단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단지 등에서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새터민 정주지 마련으로 북한주민과 새터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TSR 연결과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 조성으로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공항연결 철도노선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방향으로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자유로 등 도로교통 혼잡요인이 발생합니다.

정책공약

'대곡~소사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및 실행

- 市가 직접 개발할 경우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재원 조달에 부담이 발생하므로, 도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동 참여 및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본 노선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동 노선이 시 · 도의 부담이 없는 소사~원시선과 같은 일반철도(전액 국비사업)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해양부)와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규개정 및 발전인프라 구축

지자체별 재량권 행사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번잡한 절차, 과도한 구비서류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합리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법규 개정 및 발전인프라 구축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불합리한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5호선 국도 조기 착공, 88국지도 확·포장 등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복선전철 건설

수도권 남부지역에는 수원(영통), 화성(동탄),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서울이 생활권인 도시들과 경기도 중심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수준이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통행 수요 처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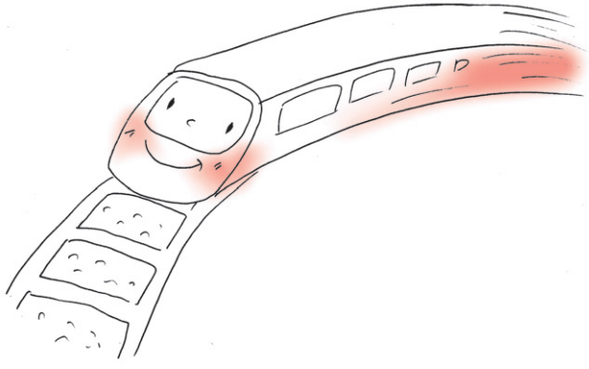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의왕, 과천, 안양 지역의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은 이 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자동차들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하거나 도로시설 확충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개선

- 건설교통부가 2003년 12월에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중·단기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인덕원~동탄신도시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2월에 발표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철(지하철) 건설의 방향을 강남 방향뿐만 아니라 강북 방향으로도 검토해야 합니다. 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인덕원~동탄신도시간 복선 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월곶~판교간 전철노선' 건설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월곶~판교간 전철노선'과 현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덕원~동탄신도시간 복선전철'에 대한 수

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 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사업

순환개발방식 사업추진(공공 및 조합시행)을 위한 이주단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에 따른 공공재정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공약

도시정비 추진

▸ 위례지구(성남·송파) 내 추가 확보, 국민주택기금 및 신규택지 등을 활용한 이주단지 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지원

과천시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세원의 극심한 편중으로 도시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안양, 의왕 등 인근 도시의 확장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정보산업기반의 문화 · 교육 · 주거기능의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기업하기 좋고 살고 싶은 과천지식정보타운

-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유연한 계획체계를 갖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자연과 주거 · 교육 · 문화 ·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웰빙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역점을 둔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제4차 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나, 총 사업비 1조 9000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관련법 미흡으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정비사업 추진

- 수원시(화성), 화성시(용주사, 융건릉), 용인시(에버랜드와 민속촌), 이천시(도예단지, 온천), 남양주시(정약용묘, 실학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의 시발점이자 최종 종착점으로서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화성의 성곽은 물론 성내외의 모습과 생활상을 완벽하게 보존하겠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축성 당시의 도면과 과정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완벽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행을묘정리의궤'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 음악과 춤, 음식과 의복 등 조선시대 문화생활 전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충청권 행정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기여하겠습니다.

환황해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한국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환경기만 일대와 군장산업단지를 포함한 새만금 일대, 한려수도를 포함한 광양항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환황해 3대 광역경제특구를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황해벨트를 지식과 정보, 문화, 관광의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만을 지식정보중심의 광역경제특구로, 새만금을 관광문화중심의 광역경제특구로, 광양항을 물류관광중심의 광역경제특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공약

환황해 3대 광역경제특구 추진 기본전략

- 광역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중국경제특구와 경쟁하고 그들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특구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광역경제특구계획청'을 설치하여 광역경제특구의 계획 및 관리, 교육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도록 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특구거점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개발을 통해 특구거점지역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엄격한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사실상의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



리와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서비스와 복지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황해 광역경제특구 네트워크 구축

- 물류기능을 향상시키고 항만과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활성화를 위해 환황해 광역경제특구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환황해 광역경제특구 네트워크화를 위해 서해안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물류축을 구축하고, 광양항과 인천·평택항의 역할 분담, 주요 거점개발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환황해 해양관광루트 구축 및 주요 항만의 열차페리항화

- 환경기만과 서남해 관광개발의 연계를 위해 해양관광루트를 개발하겠습니다.
- 인천, 평택·당진항을 열차페리항화하겠습니다.
- 지식창조형 광역경제특구를 통한 총요소 생산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 한국 세계화의 Gateway를 형성하겠습니다.
- 동북아의 베네치아로서 경제주도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평화벨트 및 교류협력지구 조성

경기 북서부지역은 서울－파주－개성을 연결하는 완충지역으로 물자의 육로수송에 따른 유통거점, 남북교류 협력공간, 개성공단의 배후지원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평화벨트 및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경제와 관광분야 사업추진을 통해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부 수도권 보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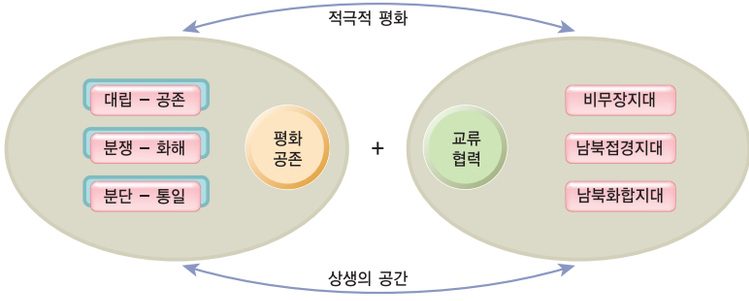
정책공약

평화벨트 및 교류협력지구 조성

- 평화벨트(Peace Belt)를 군사적 대치지역에서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적 공간이자, 남북한 교류협력 및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거점화 및 물류산업 육성

- 남북교류협력단지·경협단지 조성으로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물류기업체)·학(대진대, 항공대, 국방대 등)·관(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의 연계를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지원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이 심각하고 중견기업의 지방 및 해외이전과 영세 임대기업 난립으로 산업단지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정부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부담 비용증가로 산업단지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지구의 악취문제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최대 현안으로, 그동안 지속적 개선노력을 통하여 민원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책공약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원투자 및 제도개선

- 국비재원의 투자를 통해 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지원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대기업 신증설 제한을 완화하여 「산집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국책연구소, 중소기업청, KOTRA 등 기업지원 기관들을 산업단지 내에 집적화하겠습니다.
- 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겠습니다.
-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시화지구 대기오염 및 악

취 저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악취 배출업체인 582개소를 MTV 지역에 현대식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